

정례브리핑

2021.12.24.(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배포해드린 2022년 차세대 통일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과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해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36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2030 세대의 대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 등 5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 교육생들은 통일·평화를 주제로 명사 특강과 참여토론형 수업을 참가하는 한편, 접경지역 현장견학과 국제 콘퍼런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교육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관님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은 리진권 주북중국대사의 귀국 소식을 전했는데요.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되고 대외활동을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리진권 주북중국대사가 지난 12월 22일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김덕훈 내각총리 등과 작별 접견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북중 간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시점 등은 현지에서의 실제 물자운송 그리고 북중 간 실무협의 동향, 세간 업무의 정상화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유관부서 등과 함께 여러 관련 동향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 추진 민간단체들에게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선정된 단체가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인도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꾸준하

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9월 24일 교추협을 개최하여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고, 현재 인도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와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민간단체의 입장 그리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 원활한 사업진행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신청 및 심사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면 단체명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